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21, 야고보서 2:8-13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21회차
야고보서 2:8-13

입니다.

이제 우리는 2장의 시작 부분에서 권고한 내용의 두 번째 확증, 즉 편파성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그것이 특히 그곳의 명령법에 초점을 맞춘 왕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에
위배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율법의 요구로 시작하여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결과적인 권고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2장 1절에 대한 일종의 부차적인
권고로서 편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저는 2:1이 가장 중요한 권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과 13절의 내용은
그에 비해 다소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의 요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율법이 일반적으로 완전한 순종과 부분적인 순종을 요구하므로 편파성을
나타내는 것은 실제로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보다 못한 것을 의미하며
율법을 범하는 사람으로서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실제로 왕의 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8절, 너희가 참으로 성경대로 최고의 법을 지키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왜 여기서 왕의 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글썄요, 거의 확실하게, 그는
그것을 사랑의 계명과 연결시키는 한 그렇게 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는 왕이신 예수와 율법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율법을 최고의 법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전통인 신약성서에
따르면 실제로 이 사랑의 계명을 높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되 율법의 중심까지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을 기억하세요.

율법의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아서 하나가 없으면 하나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명령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달려 있고 의존하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명령이 율법의 중심이 됩니다. 야고보가 사랑의 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으로서 왕의 법에 관해 말할 때, 그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대로의 법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의 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 율법의 관계 때문에 왕의 법이라고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왕국의 법이므로 최고의 법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인 6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왕국의 법이고,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왕국이며, 왕이신 예수께서 도입하신 왕국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 즉 최고의 법은 예수님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최고의 법은 해방시키는 법, 자유의 법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종류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중 다섯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가리킨다. 성경에 따르면, 너희가 성경대로 최고의 법을 지키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경에 따르면 카타 텐 그래핀(kata ten graphein)이라는 법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 사항을 나타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어느 정도 구별됩니다. 나는 이것이 바울과의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언급하겠지만, 경향이 있는 바울과의 구별은 법을 본질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단어가 바울 자신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번역하기 어려운 파이라고고스(payagogos), 교장, 가정교사 등.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에서 그러한 종류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즉,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의 언어를 사용하면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가두어 가두는 것, 또는 사람들을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파라고고스, 스쿨맘, 보모로서의 부정적인 기능의 일부는 어떻게 이해하고 싶은 속박, 구속력, 속박을 낳는 힘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현실은 바울에게 있어 그것은 구속력이 있고 속박을 낳는 일종의 현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밖에서는 우리의 도덕적 무능함을 실제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법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도덕적으로 이행하려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능합니다. 법으로서의 율법은 실제로 도덕적 행위, 즉 그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우리 자신의 순종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실제로 죄의 속박 속에 있다는 것과,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려고 시도하는 한,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고 죄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로마서 7장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 바울의 표현을 사용하여 죄가 참으로 죄 있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되돌리게 하며, 우리 자신의 도덕적 성취에 의존하지 않고, 신성한 요구를 만족시키며, 임금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의무 아래 두는 것입니다(로마서 3장과 4장). 전적으로 믿음으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의 율법 이해는 실제로 바울보다는 마태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사랑의 계명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해석하신 관점에서 올바로 이해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율법을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취될 것처럼. 즉, 율법의 이행이 가능해지며, 율법의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이행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는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어느 정도 또는 어느 정도 바울과의 구별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이보다 더 넓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율법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포함시켰는데, 그런데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발견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실제로 전체 율법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당신 자신. 그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이 성취되는 것을 언급하며, 물론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법, 즉 실제로 사랑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관한 한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야고보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한해서만 율법의 계명은 명령의 율법의 표현으로 이해되며 야고보는 실제로는 바울이 율법을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부터 11절까지에서 바울은 율법, 곧 율법의 계명을 인용하면서 곡식을 밟고 있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냐고 묻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예상되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소를 관심하신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율법의 모든 계명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중적 사랑의 명령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며 네 이웃을 네 자신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소에 관한 명령을 사랑의 표현으로 봅니다. 즉,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노동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는 그 삯 등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 모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루터의 이해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즉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도덕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율법에 대한 관점을 채택했습니다. 죄가 정말로 죄악임을 드러내고 그리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발기부전, 그것은 루터교의 율법에 대한 이해이며, 현재 이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내 판단에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바울은 또한 율법에 대한 좀 더 칼빈주의적인 이해, 즉 존 칼빈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관점을 채택합니다. 제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지만, 중심에 사랑을 두고 올바르게 해석되고 모든 계명을 사랑 명령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 최고의 법, 즉 만물의 주이신 메시아 예수께서 채택하신 법이라는 점에서 이전보다 지금 훨씬 더 큰 권위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왕과 그분의 본체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기준과 말세 왕국이 임할 때의 심판의 기준이 2장 5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 왕의 법이 구약의 모세 율법 자체와 동일하지 않거나 심지어 구약 전체에 걸쳐 구약의 토라 지시와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채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용시키셨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법을 홀로 남겨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법에는 윤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율법에 항상 윤리적 구조가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윤리적 구조는 그리스도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이제 율법 안에 율법이 있는데, 이는 다른 모든 계명을 다스리고 해석하는 최고의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의 법(레위기 19:18)이 율법의 중심이 되며, 그것이 율법 전반과 관련하여 세상의 모든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전히 유효한 율법의 다른 모든 명령은 어떤 식으로든 집행된다고 가정해야 하지만, 그게 전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명령을 표현한 것입니다.

분명히 야고보는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 등에서 묘사한 것처럼 제의적이거나 의식적인 계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에 관한 한 모든 계명은 제의적이거나 의식적인 유형의 계명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점은 율법 전체,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특별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 네 번째 의미는 이것이 편애가 이웃 사랑보다 자기 사랑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대로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잘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사랑의 계명에 위배되는 것인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당신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율법에 따라 범죄자로 정죄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실제로 그러한 행동의 이기적인 성격을 나타내며, 다섯 번째 의미는 이것이 공정성이 법 자체의 중심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편파성을 나타내지 말라는 계명이 레위기 19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는 사랑의 계명인 레위기 19장 18절과 세 구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나머지 부분보다 우선하며 율법의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는 이 큰 계명은 이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지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단순한 사실, 즉 기독교적 이해에서 그 사람이 가깝고, 당신이 그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기초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 중요한 유일한 점은 그 사람이 당신과 충분히 가까워서 당신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고 따라서 당신이 선을 행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이웃과 관련된 행동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사랑의 계명대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고 율법에 따라 범죄자로 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9절에서는 너희가 죄를 짓는다고 읽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물론 그것은 명사 ergon의 동사 형태인 Ergadzomai에서 작동합니다.

당신은 죄를 짓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가 이 장에서 믿음과 행함을 말할 때 그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당신은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짓는다고 말할 때, 그는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행함과 행함이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행함과 악한 행함, 악하고 반역하고 죄 많은 행함,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행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신이 율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편파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묘사하셨습니다.

4절에 너희가 재판관이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거기에서 말했다. 이제 판사들이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1절부터 7절에 따라 그들이 행한 심판이 옳고 불공평한 심판과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왕의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죄에서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범법자를 뜻하는 단어는 파라바타이(parabatai)입니다. 의미상 이 용어의 의미는 법을 위반하는 것,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포함하므로 범죄자라는 개념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 용어의 의미는 반역의 개념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바탕이 되는 태도, 물론 신앙에 명백히 반대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반란, 권위에 대한 고의적이고 고의적인 거부, 따라서 실제로 범죄적인 반란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용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경험의 측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을 범한 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법한 자라고 하셨으니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가지에 어긋나는 자는 모든 죄를 범한 것이 됨이니라

체험에 있어서 당신은 자유의 율법을 범한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경험할 수 없으며, 이 사람은 죄책감, 즉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와 현재의 영적 존재에 대해 암시하는 모든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을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미래에 의미하는 바도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묶여 있어야 하고, 노예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자유의 법에 의해 해방되지 않았으며, 해방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법을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의 자유, 법이 제공하는 자유를 기대할 수 없지만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의 노예로 남아 있습니까? 자기 집착, 이웃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없는 자기 걱정의 노예로 남아 있으며, 자신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범위 측면에서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완전한 유죄를 나타냅니다.

Hauck이 말했듯이 parabatis는 학위가 없습니다. 하나라는 사람은 너무나 완전하다. 범죄자라는 개념은 실제로 그 사람을 정의합니다.

너희는 율법 전체를 범하였기 때문에 범죄자의 율법에 따라 죄를 범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그 중 하나에 어긋나는 자는 율법 전체를 범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느니라.

즉, 입법자는 한 분이므로 법 안에는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셨은즉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간음하지 아니하고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제 그는 누구든지 한 번에 법을 어긴 사람은 모두 유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순간에 율법을 범하면 율법 전체에 대한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율법을 주신 분의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4장 12절에서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멀하기도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의 주요 주제와 야고보 신학의 주요 요소, 즉 하나님의 통일성인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선택합니다.

그의 논리는 실제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이는 단순히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도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존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완전한 통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 전제입니다. 그런 다음 소전제, 즉 율법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이듯이 율법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한 부분을 어기는 것은 율법 전체를 어긴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모든 논쟁 노선의 목적은 편파성에 대한 경솔한 태도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야. 나는 간음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여기서 매우 미묘하게 암시하는 것은 간음을 범하는 것은 일종의 살인을 범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은 살인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아니하고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당신이 편파성을 보이는 한, 이런 식으로 이웃을 침해하는 한, 당신은 실제로 어떤 의미와 어느 정도에서 그 사람에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며, 그 사람에게서 완전하고 활기차게 살아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빼앗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이러한 편파성 문제에 대한 경솔한 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경솔한 태도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나님의 율법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지키므로 참으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완전한 불순종에 해당하며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달리 표현하면, 율법은 하나이고 사랑의 계명을 중심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실제로 그에 따른 권면입니다. 자유의 율법 아래서 심판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이제 그가 다시 자유의 법에 대해 말할 때 이것은 일종의 속박, 일종의 종살이, 아마도 정욕의 속박, 1:13부터 15, 4:1부터 3, 세상에 대한 속박, 4: 4, 더 정확하게는 세상에 취약한 내부 열정에 대한 내부적 속박으로, 우리 자신을 세계와 단결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자유법 개념에는 아이러니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는 법과 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처럼 법은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내가 말했듯이 법은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자유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을 제한적이고 구속력 있는 것으로 보는 이러한 견해는 개인의 고유한 자유를 가정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포함한 외부 세력, 즉 우리 외부에 있는 것에 묶여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신약성서의 속박 개념은 사람이 외부적 제약으로 인해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묶는 것이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를 묶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적 제약이 없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것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자유롭다는 자율적 자아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야고보를 포함한 신약성서는 그러한 가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존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열정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자유를 제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아의 속박, 자아에 대한 속박에서 해방시킵니다. 제임스는 개인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유를 진정으로 속박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외부의 힘, 즉 법칙이 아니라 내부의 힘, 즉 예처(yetzer)입니다. 그가 1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욕망, 자유 통치가 주어졌을 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결권을 추구하다 보면 자결권을 잃게 됩니다.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속박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구는 참된 자유는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하느님께서는 바로 율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해석되었고 믿음의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소위 심겨진 말씀의 한 차원으로서, 영혼을 구원하거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만약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면 사람은 항상 죽음과 파괴가 아닌 삶과 온전함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행함으로써 사람은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 물론 율법주의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율법주의는 법 자체 외부의 힘입니다.

이는 법과 관련된 방식이며, 자유의 법인 법의 성격과 모순되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심판으로 끝난다(13절). 자유의 율법 아래서 심판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심판이 긍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심판을 이깁니다.

이제 그가 여기서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왕의 법의 모든 의미에 대한 책임이 사람에게 있고, 사랑의 원칙을 명시하는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그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을 엄격하고 엄격한 의미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야고보서 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다스릴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피하려면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거니와 긍휼은 심판을 이겼느니라. 이는 실제로 두 가지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향, 즉 자비와 긍휼을 가리키며, 물론 후반부 5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할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향 중 하나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향은 정의입니다.

내 생각에 여기에는 모순은 아니지만 약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비를 특징으로 하십니다.

2장 13절에 따르면,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또한 5장 11절에는 여호와와는 자비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그분의 자비와 연민의 차원으로 간주됩니다.

정의가 없는 세상은 실제로 자비와 자비가 없을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에는 동정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정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의미하며, 아이러니하게도 궁극적으로는 자비에 대한 위반이 됩니다.

그것은 자비를 배반하는 행위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법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비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시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책임이 수반됩니다.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사랑에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을 비인격화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그들을 비인간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판단의 결과도 수반합니다. 이는 실제로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람에게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자신의 미래와 삶의 힘을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에 대한 다른 이해,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해는 실제로 인간을 진정한 인간에서 대상으로, 진정한 인격을 행사할 만큼 충분한 자유가 없는 자동인형으로 변화시킵니다.

물론, 그가 여기서 지적하는 요점은 비록 그들이 사랑의 명령의 모든 구체적인 의미를 항상 순종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스스로 자비를 보인 사람들에게 심판 때에 자비가 베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3.2, 우리 모두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재미있는 사람은 자기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이것은 양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1절부터 13절까지를 가리키지만 앞선 14절부터 26절까지를 가리킵니다. 이 문맥에서 일은 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믿음의 표현인 행위에 대한 믿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2:14-26) 실제로 그가 이 문맥에서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자비의 행위, 즉 자비의 행위입니다. 만일 그것이 행위로 표현되는 믿음이라면, 특히 사랑의 계명에 가차 없이 붙어 있는 자비의 행위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심판 날에 정말로 무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중심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14절부터 26절까지에서 믿음과 행함에 관한 이 위대한 신학적 진술을 통해 그가 편파성에 관한 이 권고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귀납적 성경 연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id Bower입니다..

21회차 야고보서 2:8-13

입니다.